

CONTENTS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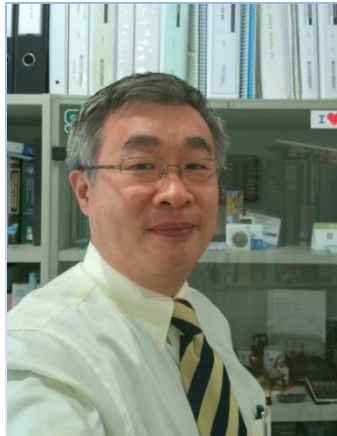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이번 호에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KC삼양정수 대표이사님이신 장명근 사장님 입니다. 증명사진 말고 “프리스타일” 사진 요청 드렸더니, 즉석에서 셀카 찍어서 전송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KC삼양정수 장명근 사장님

2010년의 두 번째 달, 지면으로 KC관계사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일년 중 가장 짧은 달이자, 명절로 인해 아쉬움과 들뜬 마음이 교차하기도 한 달입니다.

저희 KC 삼양정수는 지난 1월 11일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처리 시설 설계와 그와 연관된 기자재 공급업체로 출발하였던 삼양정수가 창립 반세기를 바라보며 이제는 수처리 플랜트 및 해수 취수설비의 전문 엔지니어링 및 제작업체로서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Create Heritage with Energy, Confidence, & Knowledge (C.H.E.C.K.) 2010 원년의 해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급품목의 특성상 저와 직원들은 중동지역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며,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 KC관계사들이 참여할 프로젝트의 기회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회사에 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한글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몇 일전 ‘CEO를 위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번역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 라고 되어있으나 원어로는 ‘~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칙의 준수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인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행동하며 그 행동으로 인해 얻은 결과에 따라 다시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는 시각(패러다임)을 효과성(유익한 결과가 극대화 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의 원칙에 맞추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쫓아가기보다는 효과성의 원칙에 집중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와 회사 또한 나라의 성공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유난히 폭설과 추운 날이 많았던 겨울을 보내며, 환절기에 건강하심과 남은 10개월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좋은 성과를 위한 과정들로 가득 채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2010년, 송년의 때에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 회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 KC코트렐-World Best Projec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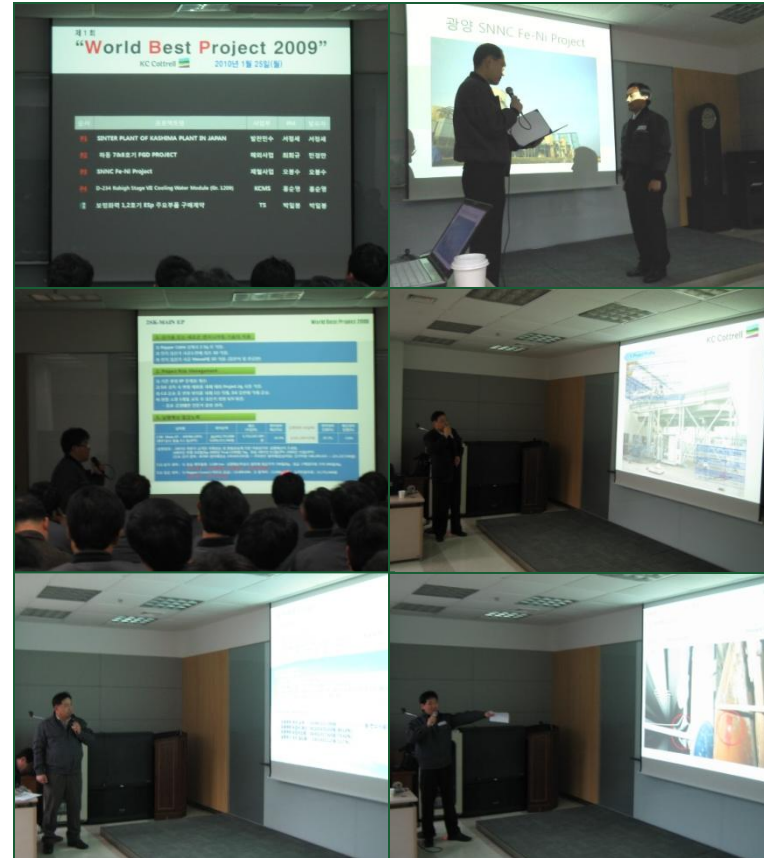
KC코트렐은 지난 1월 25일, 2009년 시행된 프로젝트 중 최고의 프로젝트를 뽑는 "World Best Project 2009"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Sinter Plant of Kashima Plant, 하동 7&8호기 FGD Project, SNNC Fe-Ni Project, D-234 Rabigh Stage VII Cooling Water Module, 보령화력 1,2호기 ESP주요부품 구매계약 등 5개의 프로젝트가 참가하였는데, 최우수상에는 발전민수 서정세PM이 진행한 Sinter Plant of Kashima Plant, 우수상에는 오봉수PM이 진행한 광양의 SNNC Fe-Ni Project가 선정되었습니다.

PM과 경영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의원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각 프로젝트의 기술경쟁력, 원가절감 및 프로젝트 리스크 극복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업무에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문서화하여 프로젝트 Now-How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KC 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



프로젝트 발표 및 시상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 KC코트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CC20 프로젝트” 추진

시장, 기술, 고객의 변화로 인해 외부 요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 역량의 강화 및 개선,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World 1st Class Company로 나아가기 위하여 KC코트렐(주)는 McQs Incorporated의 컨설팅을 받아 2010년 1월 ~ 5월초까지 “CC2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구매, 생산, 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 공정에서 절감/혁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존에 젖어 있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변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이디어 제안 제도 시행

- 기간 : 2010년 2월 1일~2010년 3월 23일
- 임직원과 협력회사로부터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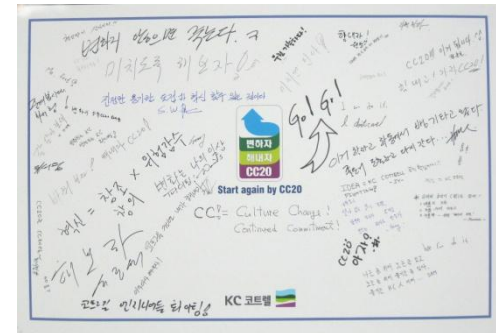
2.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워크샵 시행

- 다양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동원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3. 주간혁신교육 추진 (본사, KCMS 동시 진행)

- 전사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 Mind조성을 위한 주간 혁신 교육을 매주단위로 진행
- 기간 : 2010년 1월 21일 - 2010년 3월 31일 (본사, KCMS 포함)

KC 그린홀딩스 기획팀 장석윤
(seokyoung@kcgreenholdings.com)



▲ 앰블럼과 포스터

◀ 성공기원메세지보드판

▼ 워크샵



*CC20 ? Cost Cut 20%, Change Culture, Continued Commitment..... ☺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킹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 KC코트렐- World Best World First
제품개발 협약

“월드 베스트 월드 퍼스트” 제품개발은 중요 제철설비와 자재에 대해 해외의 선진 제철소를 능가하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사들이 구매·사용·기술부서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우수 공급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세계 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세계 최고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위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당해에 13개사와 15개 품목이, 2009년 하반기에는 14개사와 21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당사는 설비부문에 “소결공정용 전기집진기”로 하반기 추가 모집에 응모하여 금년 초에 선정되었으며 2월경에 포스코와 조인식을 체결하고 3년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협약을 체결한 공급사에 테크노파트너십 제도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약기간 동안 장기 공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품목특성을 감안 최대 3년 + 추가 3년) 향후 제품개발 활동의 성과는 포스코와 공급사가 상호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세계일류상품” 등록 지원으로 자사의 제품이 “세계일류상품” 선정 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KC코트렐 포항사무소 김규백(gyuback@kc-cottre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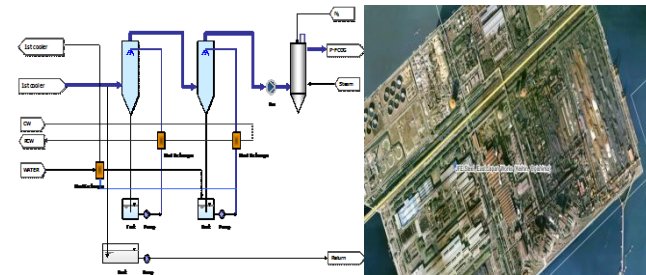
▷ KC코트렐-일본 SPCO에
Ferro-cokes Demo plant 수주

KC코트렐 제철사업부에서 2010년 1월 19일 일본 SPCO에 원화 14억 상당의 Ferro-cokes Demo plant 수주 계약을 성공했다. SPCO는 일본의 4개(JFE 엔지니어링, KHI, Hitz, SHI) 회사의 제철 part가 통합하여 설립한 제철 엔지니어링 사로 이번 수주 건은 CO2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일본 4개 제철회사(NSC, JFE, Sumitomo, Kobe steel)가 참여하는 Ferro-cokes Demo plant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이 plant는 2대의 Cooler와 Tar 집진기, 그리고 열교환기로 구성되어 출구에서의 온도보증, Naphthalene 및 Tar를 포함한 dust 제거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공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향후 일본에서의 기술선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곳의 도움을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 이후 몇 번의 기술 meeting을 하면서 SPCO의 신뢰를 얻은 결과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CO2 저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의 목표를 가진 Ferro-cokes Demo plant로, 성공적인 마무리 통해, 2015년 상용시점에는 Demo plant를 통한 기술선점으로 일본진출의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납기일은 2010년 8월말 예정이다.

아래는 기본적인 process 및 plant가 설치되는 JFE의 Keihin works다.



KC코트렐 제철사업부 한동우 선임(dongwoo@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 KC코트렐-

삼천포 화력 1,2호기 탈질설비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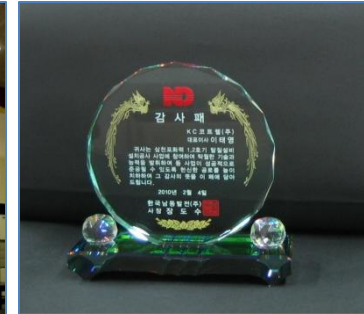
지난 2월4일 절기상으로 입춘을 맞이하여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삼천포화력 1, 2호기 탈질설비 준공행사”에 KC코트렐이 탈질설비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삼천포화력 1,2호기는 1984년 2월에 국내 최초의 560MW 대용량 유연탄 발전소로 건설되었으며 이어서 3,4호기, 5, 6호기가 차례로 건설되어 삼천포화력본부가 전력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였습니다. 1,2호기 탈질설비 추진배경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질소산화물 규제치가 2010년부터 350에서 150ppm으로 강화에 대비하여 추진되었으며, 향후 규제치가 50ppm까지 강화되어도 별도의 설비 증설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총 공사비 약 26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남해안 청정해역인 해상한려수도 지역에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지구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본 공사는 기존 설비에 추가하는 공사로 수많은 간섭설비와 짧은 공기에 계획예방정비 기간과 연계해야 하는 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이 '09년 3월 계약 이후 12월 기적적 준공까지 10개월 만에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준공까지 완료하여 KC코트렐의 기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준공행사는 한국남동발전 사장님 주재로 시공사(KC코트렐, 한진중공업)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본부장, 발전처장, 기술처장, 삼천포화력 전 직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KC코트렐은 삼천포화력1~4호기 탈황설비에 이어 1, 2호기 탈질 설비까지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으며 이태영 사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발전민수사업부장인 최영희 상무께서 참석하여 본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KC코트렐 발전민수 이강수PM (kangsook@kc-cottrell.com)



감사패



준공식 행사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 하동화력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회수공정" 설치

하동화력에 2000nm³/hr 규모의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회수공정 설치 공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세계 최초로 완공되었으며, 현재 고체 흡수제의 유동 테스트 등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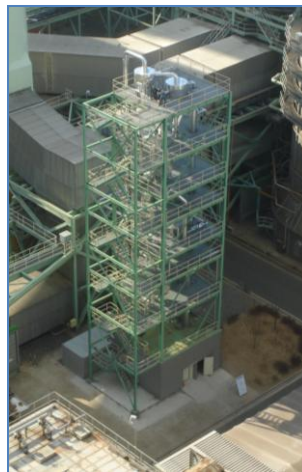
이번 공사는 주관기관인 에너지 기술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시행된 것으로 CDRS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국가 연구과제 중 하나로 KC코트렐은 발전 5사와 함께 참여기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시공공사도 주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준공식은 2월 중순 이후 교과부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과제의 성공은 향후 KC코트렐이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저감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여겨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코트렐 발전민수 서정세PM (jeongsei@kc-cottrell.com)



▶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회수시설



▷ KC INVALL GREEN ENERGY 설립

KC는 지난 2009년 말 INVALL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C는 관계사인 솔라플러스 주식회사의 지분을 스페인 풍력발전 회사인 INVALL SA에게 50% 양도하고 사명을 Solar Plus에서 **KC INVALL GREEN ENERGY CO., LTD.**로 변경하였습니다. KC-INVALL은 기존 태양광사업에 새롭게 풍력발전을 더하여 향후 더 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INVALL은 1965년 설립되어 25년동안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00MW이상의 풍력발전을 생산하였습니다. 40여명의 직원이 Development, Engineering Public Sector, Engineering private Sector와 International Division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사는 Reus에 위치하고 Tortosa와 Lleida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KC INVALL은 지난 2월3일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와 풍력자원 조사 및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KC그린홀딩스 기획팀 홍기은(kieun@kc-greenholdings.com)



남부발전 남호기사장님과
KC인발그린에너지 최홍룡사장님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1000MW급 유연탄화력 飛上

新보령·태안 5차 전력수급계획 포함 추진
서부발전, 국산화 초초임계압 채택 '관심'

1000MW급 유연탄 화력 건설 여부에 따라 각 발전사들의 추가 성장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말 확정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포함된 동서발전의 당진 9,10호기는 현재 터빈·변압기 등 주기기 계약 절차가 진행중으로 3월말경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남부발전은 삼척중합발전단지에 들어설 삼척화력 1,2호기를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저열량탄 전소(全燒) 발전소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4차 계획상에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5,6호기(870MW×2)도 포함된 바 있다.

발전회사에 따르면 그간 주춤했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올해말 확정될 5차 수급계획상에 대용량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각각 단위호기 1000MW급 유연탄 화력을 5차 수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보령 1,2호기와 태안 9,10호기(신태안1,2호기)는 4차 수급계획에서 주민동의, 건설부지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중부발전의 경우 당초 보령화력 인근 송학도 부지에 신보령 1,2호기를 건설키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보령 1,2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동의서까지 받아내면서 이번 5차 계획 반영에 기대를 하고 있다.

중부발전측은 당초 신보령 1,2호기의 예정부지였던 송학도 인근과 보령화력 단지 등 건설부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중이었다. 현재 신보령 1,2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으로 5차 계획상에 포함된다면 내년 9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부지내에 9,10호기(1000MW×2)를 건설키로 하고 이번 5차 수급계획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화력은 당초 500MW급 12기의 부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1000MW급 후속호기 건설 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부발전은 태안 9,10호기에 국책사업으로 연구·개발된 1000MW급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 실증플랜트로 건설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제는 한전 전력연구원과 두산중공업이 약 637억원을 투자,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서부발전측은 태안 9,10호기가 5차 계획에 반영될 경우 2013년 4월경 주기기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경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태안 9,10호기가 초초임계압 발전소 국산화 첫 모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을 비롯 전력그룹사내에서 LNG복합화력은 비용이나 효율 등 단점이 많아 신규 건설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며 “대용량 유연탄화력을 추가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각 발전회사들은 5차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합화력의 경우 5월경 군산복합(817MW)이 준공될 예정으로 지난해말 확정된 간년도 수급계획상에는 인천복합 3호기(450MW)와 안동복합이 400MW로 용량이 줄어듬에 따라 5차 계획상에서 발전5사의 신규 복합화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처 : 전력신문 2월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soojeong@kc-greenholdings.com)



관련사진: 태안화력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포스코 ICT출범 그린IT분야 중점 추진
시너지효과 기대

포스데이타·포스콘 합병포스데이타와 포스콘의 합병법인인 포스코ICT가 1월 22일 출범했다. < 관련특집 7면 > 이날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 최영우 포항상의 회장, 정준양 회장, 박한용 포스코ICT 사장 등 관련인사 90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ICT는 이날 새로운 회사 CI를 선포하고 비전과 향후 경영계획 및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합병으로 포스코ICT는 포스데이타가 보유한 IT서비스, 포스콘이 보유한 자동화와 엔지니어링사업 역량이 합쳐져 시너지 창출은 물론 컨버전스(융합)사업을 적극 펼칠 수 있게 됐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포스데이타와 포스콘이 하나의 회사가 돼 2의 힘을 내는 게 일반적 이론이지만 포스코ICT에 기대하는 것은 3 이상의 힘을 내는 것”이라며 “포스코ICT가 기술 융합과 지식산업 시대에 무한한 힘을 발휘, 포스코패밀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포스코 3.0의 선두주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ICT는 엔지니어링·프로세스·오토메이션·IT서비스를 3대 핵심사업으로 하고, 스마트 그리드·u에코시티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올해 매출액 1조 1000억원, 2014년 매출액 2조원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T서비스본부·엔지니어링본부·포항사업본부·광양사업본부·SM본부로 재편한 데 이어 미래성장본부를 신설하고 스마트 그리드·u에코시티 등 그린IT 분야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는 IT 기술을 이용해 전력 생산과 운용, 소비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포스코ICT는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및 솔루션 구축, 운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제철소를 비롯한 생산현장의 에너지 유통체계화와 저전력 조업을 실현하는 마이크로 그리드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인 제주도 실증단지 프로젝트 중 스마트 리뉴어블(renewable) 분야에 참여, 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제로 등의 개념을 접목한 미래형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는 u에코시티사업도 추진한다. 박한용 포스코ICT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코ICT는 IT와 전기·제어 등의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면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대 혁신을 꾀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포스코신문 (1/28, 제 803호)



KC코트렐 포항사무소 김현교 선임 (hyunkyo@kc-cottrell.com)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이보람 (boram@kcgreenholdings.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현대제철 제1고로 화입,
한국경제 희망의 불꽃을 피우다

당진지역에 연산 800만톤 규모(400만톤 고로 2기)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1고로에 첫 불을 당기는 화입(火入)식을 갖고 한국 경제에 희망의 불꽃을 피웠다.

현대제철은 1월 5일 당진 일관제철소 고로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고로 엔지니어링을 주관한 폴워스(Paul Wurth)사 마크 솔비(Marc SOLVI) 사장 등 내외빈과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제1고로 화입식' 행사를 갖고 성공적인 고로의 가동을 대내외에 알렸다.

일관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본격 가동 의미

화입식은 철광석과 코크스가 장입되어 있는 고로의 하단부에 처음으로 불씨를 넣는 행사로 일관제철소의 심장인 고로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지상 110m 높이로 우뚝 솟아 일관제철소의 상징으로 불리는 고로가 화입과 동시에 생명을 얻고 끊임없이 붉은 쇳물을 토해내는 용광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정몽구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06년 10월 27일 기공식 이후 전 임직원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사명감으로 땀과 열정을 바쳐 일관제철소 건설에 매진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계획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3년여 만에 제1고로 화입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관제철소 건설에 5조8,4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약 1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향후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제철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룩셈부르크 폴워스사의 마크 솔비 사장은 "오늘 가동되는 현대제철의 제1고로는 폴워스가 공급한 고로 가운데 가장 큰 모델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제작한 설비"라며 "현대제철이 세계 제일의 철강업체로 도약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의 환경경영 철학 반영해 친환경 고로로 건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선철(銑鐵, Pig Iron)을 만드는 제선(製銑)공정의 핵심설비로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에서 제조한 소결광과 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한다.

여기서 나온 쇳물은 다음 공정인 제강(製鋼)공장으로 보내져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강철(鋼鐵, Steel)로 만들어지며 이후 연속주조(連續鑄造)공장에서 슬래브(Slab)로 만들어진 뒤 열연공장과 후판공장으로 보내져 최종 제품인 자동차용 열연강판과 조선용 후판으로 탄생된다.

현대제철의 고로는 내용적 5,250㎥, 최대 직경 17m, 높이 110m의 대형 고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도입된 최신 설비이며, 조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기존 고로에 비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현대제철이 기존 일관제철소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고로에 장입되는 제철원료를 하역, 이송, 보관하는 시스템이 모두 밀폐형으로 운영되는 전 세계 최초의 녹색제철소라는 것이다.

항만에서부터 철광석과 유연탄 등 제철원료를 밀폐형 연속식 하역기로 하역하고 밀폐형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해 이송함으로써 먼지와 소음을 차단할 수 있으며 제철원료를 보관하는 저장고도 완전 밀폐형으로 건설되었다.

정몽구 회장의 친환경 제철소 건설 의지는 2006년 10월 27일 일관제철소 기공식에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기공식 기념사에서 "당진 일관제철소는 최신 환경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건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존 공장에 환경설비를 설치해 대응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선의 친환경 설비와 환경오염 방지 기기들을 도입 설치하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적인 일관제철소가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제철은 일관제철사업 부지 조성공사에 돌입한 이후 2007년 7월 밀폐형 원료처리시설 착공식을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이는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데 친환경설비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강한 신념에서 비롯됐다.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현대차그룹 '불굴의 도전정신' 결실

이번 현대제철 고로의 본격적인 가동은 그동안 꾸준히 도전해 왔던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사업에 대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현대차그룹 특유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일관제철소 건설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고로 가동까지 당초 계획했던 공사일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 건설은 물론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현대제철 전 임직원들이 일지단결해 일관제철사업 성공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열정을 바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 경영자인 정몽구 회장이 일주일마다 2~3번씩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을 격려했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은 밀폐형 원료처리시설을 비롯해 코크스공장과 고로공장 등 일관제철소 각 공장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설비가 설치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주말에도 수시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임직원들에게 열정을 불어 넣었다.

庚寅年 새해 한국 경제에 희망의 불꽃 되기를

현대제철은 고로 화입을 계기로 庚寅年 새해 한국 경제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전 세계 철강업체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큰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고용유발 효과는 건설에 9만3,000명, 운영에 7만8,000명에 이르며, 8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가 가동되면 총 1조7,000억원의 중소기업 매출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제철 1고로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연간 400만톤 규모의 열연강판 및 후판 생산이 가능해지고 내년에 2고로까지 가동하게 되면 총 800만톤의 고급 철강재가 국내에 공급돼 80억 달러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관련 수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고급 철강재는 조선, 가전, 기계, 자동차 등 철강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인 소재 조달은 물론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철강소비량 세계 1위, 조강생산량 세계 6위의 철강강국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산업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설비의 부족으로 연간 2,000만톤이 넘는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과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무려 조강생산량 5,526만톤의 52.3%에 달하는 2,894만톤의 철강재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그 결과 대일무역적자 327억 달러 가운데 78억 달러가 철강부문에서 발생했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이 우리나라 전 철강재 명목소비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심한 무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고로의 본격 가동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희망의 불꽃으로 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현대제철 웹사이트, 뉴스센터(1/6)

KC코트렐 포항사무소 김현교 선임 (hyunkyo@kc-cottrell.com)

KC그린홀딩스 지원팀 이보람 (boram@kcgreenholdings.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철강가격 상승 기대감 빠르게 확산

- 대형 유통 및 대형 실수요 적극 대응은 아직.. 가수요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
- 가격 변동성에 대형 유통업계 이목집중

주요 철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철강 유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선발대로 H형강과 H형강에 대해 생산업체들이 1월 인상한 바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열연과 후판도 이달 들어 2~3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시중 유통가격은 H형강의 경우 80만 원대 초반으로 올랐으며, 일반형강도 70만원 대 초중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열연강판은 국내산이 70만원 대 중반, 수입산은 70만원대로 올랐다. 수입 후판도 다시 70만원 대에 진입했다.

유통업계는 2월에도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철 스크랩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로 제품의 잇단 가격 인상이 전망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철근의 경우 4~6만원, H형강과 일반형강은 3만원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판재류는 열연강판이 중국산 가격 상승과 타이트한 수급상황으로 시중가격이 톤당 3~5만원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후판도 약 4만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강관도 수입열연강판 상향 조정으로 5%가량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전기로 제품은 철스크랩 가격 급등, 판재류 제품은 철광석과 석탄 등 원료가격 상승과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수요는 많지 않아 보인다. H형강류의 경우 생산업체들이 재고 관리에 들어가면서 시중 재고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철근은 대형 유통과 대형 건설가들이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지 않은 상태. 판재류는 가격 상승을 낙관한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입 구매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산은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급상황에도 이유가 있지만 수요부진이 행보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로 제품의 경우 제강사들이 금주 들어 철 스크랩 재고가 넉넉해지면서 가격 인하 발표를 통한 구매량 조절에 들어갔다. 즉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점이 부각되고 있다. 판재류는 중국의 출구전략과 높은 재고, 단기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가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재 가격 상승시 유통업체들의 가수요가 강한 바람으로 불어왔지만 올해 초 철강재 가격 상승기의 유통의 반응은 예전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많은 가운데 향방은 다음주 경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스틸데일리 2010-01-22 발취

KC코트렐 구매팀 오예지 (yeejio@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환율 불안, 앞으로의 향방은 하락에 초점이 맞춰질 듯

2010년 들어 원화 환율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월 11일 원/달러 환율이 1년 4개월 이래 최저치인 1,110원대로 하락한 후 22일에는 1,150원대로 다시 급등하기도 하였다. 최근 환율불안의 원인은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있다.

한국기업의 양호한 실적, 경제의 회복세, 무역수지 흑자지속 등의 대내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환율은 국외 요인을 많이 받았다. 2009년 12월 미 연준 관계자들의 거듭된 초저금리 유지 발언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며 달러 약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1월 중순 이후 중국의 금리인상 우려와 그리스의 재정위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방안 발표 등으로 다시 강세로 반전하였다.

최근 환율불안의 배경



앞으로는 대외 요인 중 글로벌 금융리스크 요인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세계경제 불균형 이슈와 관련된 위안화 절상이 향후 환율 흐름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중의 금리인상, 유럽 재정위기 우려, 미국의 금융규제 등을 포괄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달러가치와 국제자본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위안화 절상 이슈는 달러보다는 아시아 통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대내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조선업체의 수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수가 +0.76을 기록하여 위안화 절상은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2009년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선업체의 수주는 향후 수주 개선으로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나 일부 청산 또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원화가 일시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4대 요인의 전망 및 영향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이 원화강세(환율하락)전망에 우위를 두고 있다.

출처: SERI 경제포커스 2010.01.26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 증시전망, 2월 증시전망 “루비콘강을 건너다”

* 중국 건축과 미국 금융규제로 인한 유동성 위축 우려와 경기선행지수의 둔화가 가능성 등으로 상승추세의 근간이 되었던 가격수준을 이탈. 향후 3개월 지수전망을 1450~1700p 제시하며, 분할매도를 통한 주식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

* 지수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 및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위험 축소 전략으로 지수하락기에 강세를 보인 업종과 PBR과 PER가 저평가된 업종 및 변동성 확대기에 강세를 보인 업종의 비중은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은 비중을 축소

조정의 본질은 경기모멘텀 둔화

1월 효과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출발했던 주식시장이 1월 후반 빠른 속도로 하락반전하며 전형적인 전강후약 장세를 전개했다. 조정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중국의 건축기조 강화와 미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는 1월 후반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추세의 변곡점을 알리는 시그널로 보고 있다. 금반 주가조정의 본질은 경기모멘텀의 둔화가 가능하며, 연말연초의 건조한 상승추세와 우호적인 유동성에 가려져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사는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비 모멘텀이 최근 대내외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강력했던 기저효과에 대한 반작용을 감안해 1월을 기점으로 peak out할 것이란 시각을 유지한다. 다소간의 시차는 있지만 경기선행지수의 peak out은 필연적으로 주가조정을 동반한 것이 과거의 경험이며, 1월의 주가조정으로 KOSPI의 전년비 모멘텀도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역시 금융지표를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다. 금융지표가 실물지표보다 선행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점진적으로 회복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증시의 탄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엄한 실타래, 건축과 규제 그리고 유동성

미국 행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오바마 대통령의 2010년 연두교서에서 재차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에 대한 뉴스 플로우도 1월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당국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축기조의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건축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반영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축이 중국의 펀드멘탈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단기적인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이슈와 경기모멘텀 둔화가 맞물릴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건축과 미국의 금융규제는 결국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는 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소비린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국가의 위험으로 치부되고 극복가능성도 제기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다시 불안해진다면 개별위험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 전망 : 3개월 전망 1450~1700p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130p에 가까운 조정을 보임에 따라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추세를 담보해 줄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심리 보다는 리스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경기모멘텀과 기업이익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레벨이 높다는 점과, 최근 주가 조정으로 PER이 10배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시장의 하락속도를 제어하는 요인이지만 시장의 상승추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와 조정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3개월 지수전망을 1450~1700p로 제시한다.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하락장세에서 가격을 자신할 수 없다면 분할매도를 통해서 주식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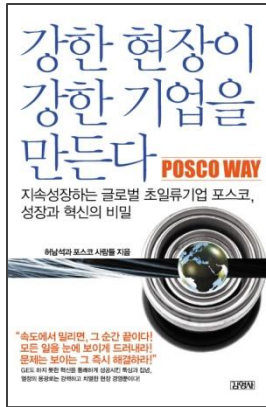
2월 섹터배분 전략

현재 주식시장은 경기고점 임박에 따른 지수의 하락추세로의 전환,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변동성, 미국 금융규제와 중국 출구전략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지수하락기에 강세를 보인 업종과 유용한 투자지표로 볼 수 있는 PBR과 PER가 저평가되어 업종 및 변동성 확대기에 강세를 보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 미국과 중국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을 찾아 비중을 축소하여 리스크를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우선, 비중확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유틸리티, 음식료, 통신서비스업종의 비중은 확대하였으며, 비중축소 조건에만 해당되는 소재와 산업재 및 에너지업종의 비중은 축소하고자 한다. 반도체업종은 대표기업으로서 지수하락기 및 변동성 장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비중확대를, 철강업종은 여러 비중확대 조건을 충족하지만 중국발 리스크를 감안하여 소폭 축소, 은행업종은 미국 금융규제에 대한 악영향은 우려되나 상대적 저평가와 지수하락기 강세를 보인 이유로 비중을 소폭 확대하고자 한다. 나머지 업종은 중립의견을 제시한다.

출처: 하나대투증권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1



<책 표지>

책 소개

위기일 때 반드시 혁신하고, 잘 나갈 때 죽을 각오로 혁신하라!
글로벌 기업 포스코 혁신 성공 스토리

매출액 740배 성장, 조강 생산량 74배 상승. 기술, 자원, 경험, 시장전략이 모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의 핵심 성장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책은 2006년 봄부터 2009년까지 불꽃처럼 타오른 포스코의 혁신 활동을 광양과 포항의 양대 제철소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모아 엮었다.

2006년 7월 4일, 광양제철소의 전 사원과 가족, 외주파트너사의 전 사원, 광양 시민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광양제철소의 비전을 선포한다. 그 비전 선포식은 광양제철소와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한 의미 깊은 자리였다. 그리고 엔지니어의 30%를 혁신 업무에 배치하고, 남자들이 우세한 현장에 최초로 여성공장장을 발탁하며, 부서간의 벽과 성별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을 허물자 비로소 사원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고, 광양제철소에서 시작된 혁신의 불길은 이내 포항제철소로 번져가 포스코 전체를 혁신의 불덩어리로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밖에 위력적인 현장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형 식스시 그마와 모든 일을 눈에 드러내는 VP와 문제를 보이는 그 즉시 해결하는 QSS 활동의 실체가 생생하게 공개된다.

▷ 이달의 책 "강한 현장이 강한 기업을 만든다"

이번 호 특집으로 책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현 포스코 부사장 겸 생산 기술부문장인 허남석 부사장이 지은 책으로 사장님께서 포스코 신년회 설비부문 감사패 받으시면서 선물 받으신 책입니다. KC코트렐 임원들도 이 책을 읽고 임원회의 시간에 간단하게 감평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편, 제철사업팀에서는 신영만 부사장님께서 이 책들 배포하셔서 팀원들이 독후감까지 썼다는데 오늘은 책 소개와 함께 사업팀 여러분의 독후감 일부를 발췌하여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러운 점은 광양과 포항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 광양제철소는 저돌적이고 신기술 및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 이에 반해 포항제철소는 만형처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 고참의 등뒤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제대로 배운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철사업부 임창호 상무

이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혁신"이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스코가 여러 혁신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VP" 즉 "Visual Planning"이다.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을 하며 남에게 나의 업무와 실수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모르는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는가? -제철사업부 한동우 선임

지금 KC는 많은 시스템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시스템변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 자체도 시스템으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는 공감대 등이 필요하며 그런 공감대가 결국은 시스템변화를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으로 생각이 든다. 결국 1+1이 2가 아닌 10, 100이 될 수 있는 힘, 또한 소통이며 공유라고 할 수 있겠다. POSCO란 기업은 그 소통을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늘려가고 있으며 그 힘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타기업이 해온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는 힘으로 키워 준 것이다. -제철사업부 김재현 선임

이 시점에서 현재의 "KC 코트렐"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매년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발표된다. 3-3 중장기 계획, 또는 원가절감 "CC20"와 같은 회사의 목표.

과연 그 세부 목표와 Key word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정확히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인지 문제인가? CC20와 같은 회사 목표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제철사업부 이창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 매일 같은 업무, 반복되는 일상에 자칫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같은 일을 무심코 하게 되는 나를 언젠가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경력이 쌓이면서 노후가 아닌 손에 익은 일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입사한지 2년 밖에 안된 신입사원으로 더욱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철사업부 이원희

CONTENTS

인사말씀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2

Nol-Tec visit to KC

This time I had a good chance to interview with Mr. Fabio Novelli who is the vice president of NOL-TEC in Europe. It was his first visit to Korea, so I wondered how he felt about Korea and KC Cottrell. Here are answers to the questions.

Q. It's your first visit to Korea. When many foreigners are said "Korea", they recall Worldcup or North Korea. Before you came to Korea, what image do you have of Korea? After your visit, how was it changed?

A. The first impression I had with Korea is clean and organized when I arrived at Incheon and it made me so comfortable. The city of Seoul is very clean, but the heavy traffic surprised me. The weather was little colder than I expected. I expect warm weather, but the temperature is almost similar with Italy. The business culture here was also impressive. I felt so the Korean business culture similar that is of North of Italy. Every position on the job was important and it made me feel home.

Q. You had many Korean foods. The first day, Bulgogi, the second day, like a Korean pizza(김치전), the third day, grilled barbeque, comparing to Italian food, How was it?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like most?

A. The Barbeque Pork (Bulgogi) is called "Gy" in Italy.
 "The similarity between Korean and Italy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food. Having dinner together means socialization in Italy and it is exactly same in Korea. You want your guest or friend feel comfortable at the dinner table. Italians eat together not because to eat, but spending time together, create socialization, and develop friendship. This is the reason Italians spend more time for food more than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wine also makes the comfort atmosphere. In case of Korea, Soju work like a wine in Italy. Mix up with Soju, Korean traditional drink with beer also reminds me of Italians mix beer with Vodka or Grappa (Smile). Wine and liquor makes you happy and increase the socialization effect.
 I am a vegetarian lover, like salad. Having salad with barbeque, something I have never tried before and I liked it. (고기를 넣은 상추쌈을 가리킴)
 Taste of Korean pizza was of course different with Italian, but it was something I really enjoyed.

Q. Our company is toward to the global company. So we staffs try to have a global mind. In your point of view, how about us? What level is it?

A. One of the reason that Nol-Tec started talk with KC was as soon as I check the Website, I understood who is KC and it is international minded company. In the first meeting with KC, I found two similar way of doing business between KC and Nol-Tec. Nol-Tec is a global oriented company as we have company in US, Italy and Singapore. We have people struggling around the world. Globalization of the market makes us to rethink the new way of developing market. You need to be close to your customer. This opportunity to cooperate with KC and Nol-tec, we can shar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customer. Our customers are very similar, Power plant, steel plant etc. KC approach to the global company was very impressive and I think Nol-Tec has to learn from it.

The level of KC is already good enough. However, in the business, you can never be satisfied. As soon as you reach one target, you have to move up to the next level. I know KC is now doing a CC20 campaign. Reducing the costs of 20% means increment of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and satisfying the customer. I feel 100% comfortable toward business attitude and vision of KC.

Q.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 that you wish to leave to KC employees?

A. I suggest and recommend KC employees to be they need to be very proud what they are doing now. The management has the great business mind and you are very lucky to be working with the open minded management.
 Doing business is always hard. You have to pay attention and work hard. I believe satisfaction at the work place is very important and one side of life. I called this "soft ware". The other "hardware" is of course the money. Two factors are co-related each other and you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fe if you are working in good company and accomplish on both factors.
 In near futur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C and Nol-Tec will allow the KC employees to visit Italy someday. Different culture and way of living can grow the ability and knowledge of the world and it is a big benefit to the person.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your time and sincere answer. Have a great day.



with Mr Fabio Novelli

KC그린홀딩스 기획팀 홍기은 (kieun@kcgreenholdings.com)
 KC그린홀딩스 지원팀 김현주 (hyunjoo@kcgreenholdings.com)